

지역 소식통

김제시, 신규공무원  
김제비전 탐방 실시

김제시는 김제비전(vision)탐방과 직무교육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신규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김제 주요사업장과 시청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으로서의 직무능력 향상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능력을 기르기 위해 자체 직무교육을 진행했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 친절 등 다양한 소양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김제시의 비전(vision)과 현재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김제 주요사업장을 견학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김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특별교통수단  
임신부까지 확대 운영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 행복 도시를 조성하고자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위험도가 큰 임신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를 임신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김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택시 13대로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김제시는 임신·출산을 제고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신부들이 병·의원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이동 서비스를 강화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용시간은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2km당 기본요금 700원, 관내는 km당 100원, 관외는 700m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김제시지체장애인협회(063-544-8270)로 사전등록 및 전화 예약해야 하며, 심야 시간은 1일 전 사전예약이 필수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수소 기업에 '관심 집중'

## “안전하게 스마트폰 사용합시다”

‘2020 완주기네스’에 수소기업 등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일진복합소재·가온셀

국내 수소경제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완주군의 수소 관련 3개 기업이 '2020 완주기네스'에 등재되어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기네스 재발견 선정위원회는 지난달 군민 대상 공모와 자체 발굴, 기존 선정 사례 등 169건 중 최종 150건을 '2020 완주기네스'로 선정했다.

특히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봉동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세계 최초 수소트럭 양산'으로, 일진복합소재는 '국내 유일 수소저장용기 양산기업'으로, 가온셀은 '세계 최대용량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시스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기업'으로 각각 완주기네스에 선정됐다.

완주기네스 재발견 선정위는 봉동읍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트럭을 양산해 지난 7월 수소전기 대형트럭인 '엑시언트(Xcient Fuel cell)'를 스위스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 트럭은 사전에 조사한 대형 트럭

수요처의 요구 사항에 맞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400km, 수소 충전 시간은 약 8~20분이 걸리도록 개발됐다. 현대차는 승용차에 이어 트럭부문에서도 수소전기차 대량공급을 본격화하고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상용 부문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선정위는 또 일진복합소재(봉동읍) 선정 배경과 관련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전기차의 수소저장용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업은 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이러와 수소전기차용 연료탱크도 생산하는 데, 전 세계에서 수소전기차용 연료탱크 회사는 일진복합소재와 일본 도요타 두 기업뿐이라고 선정위는 덧붙였다.

일진복합소재가 개발한 매연 저감장치인 노후 경유 차량에 부착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주는데, 작년 말 기준 국내 9만5000대, 해외 2,000대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봉동읍 전주과화산단에 있는 가온셀

역시 수소연료전지 전문업체로, 20여년 동안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 2009년에는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 배터리 하이브리드시스템 개발로 2.2kw급 세계 최대용량의 DMFC 스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DMFC는 국내 수소차에 들어가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와 동일한 원리로 구동되는 연료전지로 메탄올을 이용해 수소를 추출하게 된다. DMFC 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온셀에서만 연구 개발 중이다. 가온셀은 또 다양한 수소소모빌리티 분야에 적용해 수소지게차를 도내에 10대 보급하기도 했다.

완주군은 이들 3개 수소산업 기네스 기업을 포함한 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활용의 전주기(全周期) 산업군과 각종 연구기관이 집중돼 있는 등 수소경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보고 국내 수소경제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현영삼)는 지난 14일 1388청소년자를 지원단 스마트해밀단 길거리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해밀단은 올바른 스마트폰이 어 문화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취지로 결성되어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이다.

스마트미디어 선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진행된 이번 활동은 보행 및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횡단보도 및 보도블럭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 캠페인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안전문구를 기획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탐색하여 캠페인 장소를 흡플

러스 및 지평선 학당 사거리로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직접 노력했다.

이 날, 스마트폰을 보느라 시선을 아래로 둔 보행자들을 위해 눈에 잘 띄도록 횡단보도 앞 연석 및 보도블럭에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김제시 어린이보호 구역 횡단보도에 스티커 부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내가 하는 활동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나와 내 가족 부터라도 길거리를 다닐 때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드림스타트, 아동 5가구 공부방 지원

KB국민은행과 구세군자선비분부가 함께하는 공모사업에 완주군이 선정돼 아동들이 공부방을 갖게 됐다.

지난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KB국민은행과 구세군자선비분부가 함께하는 공모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이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예쁘게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으로 완주군은 지난 6일 학습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아동 5가구에 공부방을 지원했다.

드림스타트 아동 5명은 도배, 조명설비 등 맞춤형 학습공간과 책대, 책상, 컴퓨터 등 물품(각 300만원 총 1,5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공부방을 선물 받은 아동은 "꿈에 그리던 내만의 공부방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선된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세군자선비분부는 2012년부터 KB국민은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공부방' 사업을 진행해 2019년까지 800가정에 공부방을 선물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성덕면, '제2의 고향만들기'로 인구유입 활성화

### 전입 세대 고층청취·실거주자 주소두기 등 프로젝트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지난 12일 성덕면 복지회관 앞에서 마을 이장과 주민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행복한 쉼터, 희망의 꿈터 살기 좋은 김제로 오세요'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김제시는 인구 늘리기와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제시 성덕면에서도 인구유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로는 성덕면 전입자에 대한 분석 및 관리를 통한 역 귀촌 방지로 전입 세대가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원시에서 성덕면 도하마을로 전입한 전모씨 세대를 대상으로 성덕면 복지기동대를 통한 전기 배선작업으로 노후 주택 주거환경을 정비했다.

또한 귀촌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 어려



움을 해결해줬다.

지난 9일에는 김제시 성덕면 용소마을에 정착하는 신규 전입자 박모씨 세대에 방문해 전입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준비한 성덕면 특산물 할보리쌀을 증정하며 성덕면에서의 새로운 첫 시작을 격려했다.

둘째는 우리시에 연고지권을 두고 출산하여 전입장려금, 전입이사비,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출산을 증대와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거주자 주소 두기 추진으로 지난 6일 지평선 중·고등학교

를 방문하여 실제 김제시 성덕면에 거주하고 있는 300여 명의 교사 및 재학생들에게 실거주자인 김제시에 주소 두도록 적극 홍보했다.

특히 김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청소년수당에 대해 안내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강기수 성덕면장은 "앞으로도 인구유입 활성화 및 출산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제2의 고향 성덕면'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동상면에 공립어린이집 이달 착공

마을에 어린이집이 없어 매일 구불구불 고갯길을 넘어 다른 마을의 어린이집을 찾았던 완주 동상면의 학부모들이 이젠 시름과 걱정을 덜게 됐다.

13일 완주군은 동상면의 공립어린이집을 이달 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의원, 행정, 건축사,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상초등학교 입구 공립어린이집 신축현장에서 신축설계 마무리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완주군 동상면 보육수요(영유아)는 총 26명으로 어린이집이 전무해 대부분 고산과 소양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일부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

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이젠 가까운 곳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

다. 특히 동상초등학교 입구에 어린이집이 신축예정인 형제자매의 이동거리가 가까워 학부모의 편의는 물론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동상면 공립어린이집은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진영(단지마을)씨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린이집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귀현, 최찬영 의원은 "설계업체에서 꼼꼼히 체크해 설계를 마무리 해주며 행정에서도 건물이 착공되면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 시공 없이 목표대로 2021년 9월에 정상 개원해 온종일 활기찬 안심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